

도내 예술인 의료비 지원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의료·경제적 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총 116명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예술인 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및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2023년 6월 21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두고 만 5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다. 또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범위 내에서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지

고 있는 예술인이다. 다만, △2022년도 종합건강검진 지원 수혜자, △국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지자체 공무원 및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80%)을 초과한 예술인은 제외된다. 선정된 예술인이 도내 의료서비스 지원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 재단에서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비를 입금하는 방식이며, 예술인 총 11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협약기관은 (재)예수병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원이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전자우편(jb7118@hanmail.net)과 방문접수(재단 5층 예술인복지증진센터) 모두 가능하다. 의료비(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는 재단 누리집(http://www.jbct.or.kr) 열린 광장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743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국악무대가 오는 7월 1일, 15일,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진다.(사진은 민요 공연 모습)

국립민속국악원, 7월 토요일국악무대

1·15·22일 민요·판굿 등 다채로운 무대 선사

국립민속국악원(원장직무대리 추정구) 토요일국악무대가 오는 7월 1일, 15일,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진다. 7월 1일에는 만남 공연은 기악단이 준비한 '통(通)하다'이다. 故서용석 명인의 뱃노래(산뱃노래)와 함강독류 거문고산조 중 주, 남도노리, 대종류 등 총 4개 곡을 선보인다. 이고, 7월 15일에는 창극단이 선보이는 '민(民)·요(謠)·삼(山) 노래하다'이다. 흥

타령, 상주함창, 물레타령, 농부가, 방아타령, 불타령, 신사철가,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산은 반락, 개교리타령까지 민요의 정수를 할 수 있는 곡을 만난다. 마지막 7월 22일은 연희부가 준비한 '타고유희(打鼓遊喜)'로, 삼도풍물가락, 민요, 판굿이 펼쳐지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카카오톡(국립민속국악원 친구추가)이나 전화(063-620-2329)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착수

사유재산권 합리적 규제·문화재 행정 예측 가능성·투명성 제고 기여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7일 도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시 적용되었던 기존의 일률적 기준안을 탈피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김제시는 이를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하고 귀신사 부도, 만경향교 대성전, 망해사 뽕나무 등 13개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만경향교 대성전 전경

주요 내용은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식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개발 문화재 유형 및 현저여건 등의 변화를 적극 고려한 합리적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 주변 300m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문화재위원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중 최종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그간 문화재 주변 건축물 축조나 태양광, 소각장 설치 등은 문화재원형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이나 시·도의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률적인 허용 기준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금번 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주변에서의 사유 재산권 합리적 규제와 문화재 행정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의 규

제 순응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건양대, 학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27일 한지산업관에서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소장 이철성)와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학술 관련 연구 자료 및 데이터 교환, 공동연구 활동 상호 지원, 학술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및 지원 등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한국학 고전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로서 협동 번역사업, 인공 지능 한문 번역 및 해석 사업, 인문학플러스스

사업(HK+) 등을 통해 국내 한국학 중심 연구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 건양대 충남지역문화연구소는 지역축제 및 예술 문화를 연구하고 현재화하는 사업,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사업에 주력하는 연구소로 충남의 역사 및 문화유산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변주승 소장은 "두 기관이 인문학 분야에서 학술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학을 넘어 글로벌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팔마, 완주문화재단 '문화이장' 사업 기부금 500만원 쾌척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 문화인력양성 '문화이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마로부터 기부금 500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팔마는 봉동소재의 지역기업으로 KS인증

콘크리트 제품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이다. ㈜팔마 육진호 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향후 완주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희태 이사장은 "전해주시 기부금은 주민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완주문화재단은 후원 답례품으로 4기 문화이장 이준희 작가의 작품(화려한 외출)을 전달해,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방부장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